

KCR 4와 KCR 5의 고문헌 목록 기술 비교 분석*

- 구현형을 중심으로 -

Comparison and Analysis of Old Book Cataloging in KCR 4 and KCR 5: Focusing on the Manifestation Level

정인영 (Inyoung Jung)**

이종욱 (Jongwo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고문헌 기술 사례 비교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KCR 4와 KCR 5 고문헌 목록 기술 방식 비교 | |

요약: 본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5판(KCR 5)이 고문헌 목록 기술 방식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KCR 4와 KCR 5의 규정 구조를 비교해 두 규칙의 기술 관점과 핵심 요소 차이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고문헌 사례에 두 규칙을 각각 적용한 뒤 기술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실제 기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였다. KCR 4는 판식, 광곽, 행자수, 반곽 치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술을 수행해 왔으나, KCR 5는 WEMI 모형을 도입해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를 분리하고, 전거제어 및 관계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구조적 기술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자원 간 연계성을 높이고 서지적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고문헌 기술에서 중요한 판본 정보와 형태 정보가 필수 기술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주기사항으로 이동하여 식별 정보가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동의보감』, 『정사공신조은사패왕지』 사례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KCR 5 기반 고문헌 목록 기술의 특징과 한계를 제시하고, 향후 규정 보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국목록규칙 제5판, 한국목록규칙 제4판, 고문헌 목록, 판사항, 형태사항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the fifth edition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KCR 5) has reshaped cataloging practices for old and rare materials. It compares the structural principles and descriptive elements of KCR 4 and KCR 5, focusing on how each rule organizes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prioritizes descriptive components. Both sets of rules were applied to selected historical examples to reveal practical differences. KCR 4, grounded in a physical-item tradition, offers detailed descriptions of layout, frame size, and printing style—essential for identifying traditional Korean editions. In contrast, KCR 5 adopts the FRBR-LRM-based WEMI model, separating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thereby enhancing authority control and relational clarity. Yet this structural shift renders many physical and edition-specific details optional or relocated to note fields, reducing descriptive granularity. As shown in cases such as Donguibogam and Jeongsagongsin Jo on Sapae Wangji, key identifying features risk being obscured, underscoring both the strengths and the limitations of applying KCR 5 to rare materials.

KEYWORDS: Korean Cataloging Rules, KCR5, KCR4, Cataloging of Rare and Old Materials, Edition and Impression Statements, Physical Description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5S1A5B5A19019463).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jiy1138@knu.ac.kr / ISNI 0000 0005 1269 2320) (제1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ongwook@knu.ac.kr / ISNI 0000 0004 6830 614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5년 11월 19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45-68, 2025. <http://dx.doi.org/10.16981/kliss.56.4.202512.45>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고문헌은 고서와 고문서를 함께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1910년 이전에 생산된 동양식 형태의 문헌을 의미한다. 고문헌은 현대의 책이나 문서와는 판식(板式), 장정(裝幀), 판종(板種) 등 여러 다른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각각의 고문헌을 식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서의 다양한 특성이 저자와 표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자료의 세부적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령 고서는 동일한 저작이라도 간행 주체, 방식, 시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한 목록은 해당 자료의 식별과 활용의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맹자언해(孟子諺解)』의 경우, 16세기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된 판본은 서지학적·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반면 이후 제작된 번각본(飜刻本)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금속활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동일한 저작이라 하더라도 특성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달라지므로, 고서 목록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문헌 목록의 작성은 한국목록규칙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목록규칙 제4판(이하 KCR 4)는 여러 기관에서 고문헌 기술의 기본 준거로 활용되어 왔다. KCR 4는 고문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술 방식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세한 판사항과 형태사항을 중심으로 자료의 개별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기사항을 통해서도 부차적인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목록 자체만으로 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록의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실제로 KCR 4의 고서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대학도서관의 고서 목록 기술에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규장각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 또한 이를 참고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정인영, 이종욱, 2024).

그러나 KCR 4는 다양한 정보자원을 기술하고 변화하는 정보 생태계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행본 중심의 기술은 디지털 자원의 기술과 자원 간의 복잡한 관계(예: 웹페이지 간 연결관계 등) 기술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새로운 기술적 요구를 수용할 구조적 기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이하 KCR 5)을 발표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KCR 5는 국제목록원칙과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 이하 RDA), ISBD(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이하 ISBD) 등을 포괄하는 개념 모델을 수용하였으며, 개체(entity) 지향 서지 구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거제어와 관계 기술을 통해 서지자원의 구조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정현, 20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R 5는 KCR 4와 자원 기술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KCR 5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WEMI 모형 즉,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 간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특징을 지닌다. 나아가 관계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간의 구조적 연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각 자원 유형의 고유한 특성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고문헌은 현대 정보자원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에 기인한 차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지난 한국목록규칙 연구(김남일, 2009; 김정현, 2025; 박진희, 2009; 윤소영 외, 2017; 이미화, 2013; 2023)는 주로 새롭게 등장한 목록규칙과의 비교를 통해 규정 변화의 방향을 분석하거나 개정의 필요 요소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행본, 디지털 자원 등 일반 자료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문헌과 같이 특수한 자원을 대상으로 규칙 적용의 실제적인 문제를 분석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악보나 화상자료 등 특정 유형을 다룬 일부 연구(강미혜, 2004; 정재영, 남태우, 2002)가 존재하나, 고문헌의 서지 특성을 목록규칙의 구조 속에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KCR 4와 KCR 5의 고문헌 관련 규정을 대상으로, 기술 대상과 수준,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판사항과 발행사항, 형태사항과 주기사항 등 주요 항목의 차이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KCR 4와 KCR 5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고문헌 구현형의 목록 사례를 작성하고 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고문헌 목록에 있어서의 KCR4와 KCR5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규정의 한계를 확인하여 보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목록규칙

가. 한국목록규칙의 개요

한국목록규칙(이하 KCR)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편찬한 한국의 도서목록법으로 이는 도서의 서지사항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기입하고, 배열하는 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KCR은 1964년 처음 제정되어 1966년, 1983년에 개정되었고 KCR 4가 2003년에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KCR 초판과 KCR 2는 저자명기본저록을 채택하고 동양서를 중심으로 한 목록규칙이었다. KCR 3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ISBD를 반영하였고, 서지기술 단위저록의 목록규칙을 추구하였으며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으로 변화하였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KCR 4는 KCR 3의 체계를 수용하고, KORMARC의 사용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되었다(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에 따르면 KCR 4의 특징은 첫째, 목록의 기능을 제시하였고, 둘째, 단행본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의 유형을 수용하였으며, 셋째,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통합하여 규칙을 제정하

였다. 넷째,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책임표시의 수에 제한이 없어졌다. 다섯째, 기본 표목과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화하였다(韓國圖書館協會, 2003). 그러나 몇몇 문제점이 꾸준히 언급되었는데, 먼저 기본표목을 선정하지 않고,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규정하지 않아 도서관계에 혼란을 빚었다. 또한 통일표목이 존재하지 않아 접근점의 확대가 어려워졌으며 목록의 편이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김정현, 2013).

KCR의 제정과 개정 과정은 그때마다의 목록 환경과 국제 규범의 변화를 국내 규칙에 반영해온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기에는 동양서 중심 기술에서 출발했지만, KCR 3부터 ISBD를 수용하면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이는 국내 목록 규범이 점차 구조적 기술과 상호운용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KCR 4가 반영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자료의 개념적 관계의 구조적 표현이다. 동일 저작의 다양한 판본과 재간본이 존재하는 고문헌 분야에서는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간의 연결이 자료 식별의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KCR 4는 개별 저록 단위 기술에 머물러 이러한 계통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웠고, 판본 차이와 간행 맥락과 같은 핵심 정보가 주기사항에 산발적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디지털 자원의 확산과 다양한 정보자원의 등장 속에서 더욱 부각되었고, 기존 규칙만으로는 변화한 기술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나. KCR 5의 주요 변경 사항

한국목록규칙 제5판(이하 KCR 5)은 급변하는 정보환경과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기존 KCR 4의 단행본 중심 기술체계는 디지털 자원의 확산과 정보자원 간의 복합적 관계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특히 KCR 4는 전거제어, 관계기술 등에서 국제적 규범과의 정합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CR 5는 기존 규칙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RDA의 구조와 개념을 폭넓게 수용하여 설계되었다. RDA가 제시하는 기술 원리는 FRBR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KCR 5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기술방식을 재정비한 것이다.

FR 모형은 개체-관계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원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KCR 5의 WEMI 구조 채택은 자원을 개념적·물리적 층위로 구분해 기술함으로써 서지데이터를 보다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는 KCR 5가 기존 KCR 4에 비해 훨씬 정교한 관계 기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저작과 저자, 표현형과 구현형, 구현형과 개별자료 등 다양한 수준의 관계를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KCR 5는 개체 간 관계를 독립적인 기술 요소로 설정하여 KCR 4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 지던 관계기술을 크게 확장하였다. KCR 4에서도 관계 정보가 간헐적으로 주기사항에 기록되긴

했으나, 탐색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한국도서관협회, 2025). 반면 KCR 5에서는 자료 간의 관계뿐 아니라 저자, 가계, 단체, 주제 등 외부 개체와의 연계까지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자료 간 연결 구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2024년 도서관대회에서 제시된 KCR 5의 주요 변경 사항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김정현, 2024). 먼저 KCR 5는 FR 개념모형을 도입하여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간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가계·단체 등 외부 개체와의 연계까지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거제어를 규칙에 명시하여 기본표목 부재로 인한 KCR 4의 혼란을 보완하고, 모든 저작에 전거형 접근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검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요소의 의미적 측면과 구문적 측면을 분리하여 저작·표현형과 구현형·개별자료를 구분해 기술하도록 하는 구조가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KCR 5는 국제목록원칙규범, ISBD, RDA 등 국제 규범과의 호환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목록 체계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규정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 고문헌과 고문헌 목록

고문헌은 일반적으로 고서(古書)와 고문서(古文書)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고(古)’라는 접두어는 오래된 것을 지칭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1910년을 기준으로 삼아 왔다. KCR 4에 따르면, 고서와 고문서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刊印)되거나 필사(筆寫)된 동장본(東裝本) 및 고문서”를 의미한다. 또한 “고서의 영인본이나 장정(裝訂)의 형태가 동장본(東裝本)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장정이 동양적 전통 형식일 것. 즉, 선장본(線裝本), 권자본(卷子本), 절첩장(折帖裝) 등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책 가운데 1910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문헌을 고서로 간주한다.

고문서는 ‘발급자가 수취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작성한 서류로 1910년 이전의 문서와 1910년 이후의 고문서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원본 및 복제본, 합철문서, 성책 된 것 등’을 말한다(강순애, 2014, 5). 이 정의에 따르면 고문서는 발행자의 경우 ① 발급자와 수취자가 있어야 하고, ② 어떠한 사안에 관해 기록한 서류로 ③ 생산기한이 1910년 이전에 생산되거나 ④ 장정이 전통적 고문서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KCR 4 제4장 ‘고서와 고문서’는 고문헌 기술을 위한 독립된 장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고문헌 목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일반 단행본 규정과 비교했을 때 고문헌 목록은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총칙을 살펴보면 기술의 주대상은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刊印)되거나 필사(筆寫)된 동장본(東裝本) 및 고문서’이다. 기술의 정보원은 다른 단행본과

같이 권수제면(卷首題面)을 으뜸으로 하지만 그 외에 이제면(裏題面), 판권기(版權記), 간기(刊記), 인기(印記), 내사기(內賜記) 등을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문헌이 일반 단행본과 달리 장기간 전송 및 보존되는 과정에서 정보원이 흩어지거나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단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의 경우 단행본에 비해 고서와 고문서의 기술규정이 더욱 상세한데 이는 다른 정보자원과 정보원이 다르고 정보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제 관련 규정은 단행본의 규정과 대동소이하나 정보원의 종류와 집차명(集次名)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책임표시의 경우 대부분 총칙의 규정과 유사하나 봉명찬서(奉命纂書)의 경우 편찬을 명한 임금의 역조명을 기술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문서의 경우 수급자와 발급자를 책임표시로 기술한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 이는 수급자가 자료를 식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판사항의 경우 총칙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판차(版次) 대신 판종(版種)을 기술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 판차 대신 판종을 기술하는 것은 고서의 경우 판차가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판종이 자료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령 번각본의 경우 형태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판종이 금속활자본인지 목판본인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지곤 한다. 이 같은 이유로 고서와 고문서의 판사항은 판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각 판종 안에서의 추가적 식별이 가능하도록 활자의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보자(補字) 혹은 사경(寫經)에 대한 기술이 구체적인 것 또한 특징이다.

발행사항의 경우 발행처는 문서의 발급자를 발행자로 기술하고 “發給”이라는 발행구분표시를 한다는 점이 단행본 목록과의 차이점이다. 번각본이나 사가본인 경우 각각의 구체적인 기술 등에 차이가 있다. 다른 정보자원의 기술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발행년으로 다양한 연도표기가 사용되는 고서의 특성에 따라 작성방식이 세분화되어 있다. 고서는 단행본과 달리 즉위기년(即位紀年)의 기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조선을 제외한 나라는 해당 국가의 연호를 사용한다. 또한 간지 기년을 작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 또한 특징이다.

고문헌 목록은 형태사항에 있어 단순히 쪽수, 면수, 권책수 등을 기술하는 단행본과 달리, ‘특정 자료의 종별과 수량’ 및 ‘기타 형태사항’을 별도로 기술한다. 예컨대 고서가 선장본인지 절첩장인지, 권책 수가 몇 권 몇 책으로 나뉘어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삽화, 판식(版式), 서체 등 외형적 특징도 기술 항목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KCR 4의 ‘고서 및 고문서’에서 특징적으로 다루는 사항을 중심으로 두 규칙의 기술 방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을 중심으로 고문헌 기술의 세부 규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항목들은 단행본과 다른 고서의 물리적·내용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KCR 5로 기술했을 때에도 규정의 적용 방식과 표현 체계에서 명확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와 고문헌 목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목록규칙에 관한 연구는 목록규칙을 비교한 연구와 새로운 목록규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전자는 KCR4와 KCR3.1을 비교한 연구(강미혜, 2004), RDA와 KCR4의 기술규칙을 분석한 연구(박진희, 2009)와 ISBD 통합판과 KCR4 기술규칙을 비교한 연구(이미화, 2013)를 들 수 있다. 우선, 강미혜(2004)는 KCR4와 KCR3.1의 단행본에 관한 목록규칙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KCR4에 있는 단행본에 대한 규칙을 서지기술 사항별로 나누어 KCR3.1에 있는 규칙과 비교하며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KCR 4는 KCR 3.1에는 없는 기술요소가 추가되었으며, 기본표목 및 통일표제에 관한 규칙이 없는 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진희(2009)는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향후 KCR 개정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KCR 4와 RDA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과 개별자료의 속성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KCR 개정 시 디지털 자원을 기술할 방안을 마련하고, 기록자원의 기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며 변경사항 갱신 등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미화(2013)는 ISBD와 KCR 4를 비교하여 KCR 개정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요소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데이터 요소와 규칙을 상호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자료의 유형을 기술할 때 내용유형과 매체유형의 기술방법을 고민하고 표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원식별을 위한 표준 번호 기술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목록규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는 KCR의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김정현, 2013)와 RDA 2020의 적용에 관한 연구(이미화, 2023) 등이 있다. 김정현(2013)은 KCR의 변천과 특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목록규칙의 흐름과 KCR 전반을 살펴보고 전문가의 설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RDA와 같은 국제적 목록규칙을 수용하고 전거제어, 접근점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화(2023)는 RDA 2020을 적용하여 자원을 기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RDA와 RDA 2020을 비교하고 구현형을 중심으로 RDA 2020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RDA 2020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체의 기술방식을 파악해야 하고 자체적인 응용 프로파일을 작성해야 하며, 인코딩 포맷에 적절한 템플릿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정현(2025)은 KCR 5의 특성과 적용, 관련 목록규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R 5의 규정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만들었으며 다른 목록규칙과 비교를 통해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KCR 5의 특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전거제어의 명시와 관계의 구조화, 목록규칙의 국제적 흐름과의 조우 등을 특성으로 들었다. 과제로는 KORMARC 사용에 관한 검토와 KCR 5가 유보한 개체에 관한 추가를 제시하였다.

KCR에 관한 연구는 목록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목록규칙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거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이는 새로운 목록규칙의 개정 이전의 기반을 만드는 연구였다고 할 수 있다. KCR 4에서 KCR 5로 변하는 과도기가 있고 기존의 목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두 규칙은 연계성과 상호운용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두 기술규칙의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고문헌 목록과 관련된 연구로는 메타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연구(김남일 2009)와 LRM 기반 고전자료 서지정보 조직에 관한 연구(윤소영 외, 2017) 등이 진행되었다. 김남일(2009)은 고문서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현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의 고서와 고문서 메타데이터의 구조를 비교하고 고문서 목록 전산화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고문서 목록 시스템에 한자 입력시스템이 필수적이고 고문서 서지 입력공정에 기반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며, 합의된 고문서 목록과 분류의 표준안이 마련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윤소영 외(2017)는 FRBR LRM을 기반으로 고전자료 서지정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RM의 초안을 분석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의 자료 중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여 LRM을 적용하였다. 또한 FRBR LRM을 기반으로 고전자료 조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protege로 온톨로지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FRBR LRM의 국내 문헌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CR 5를 고문헌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선행연구로 해외에서는 RDA를 기록물과 문화유산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Peruginelli et al., 2018; Rašmane & Goldberga, 2020)가 있다. 우선 Peruginelli et al.(2018)은 RDA가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RDA와 국제 표준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RDA의 개체·관계 중심 기술은 기록의 계층적 구조와 맥락적 기술을 보완할 잠재력을 지니지만,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기능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규정과 프로파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Rašmane와 Goldberga(2020)는 라트비아 국립도서관이 구축한 RunA 디지털 컬렉션을 대상으로 LRM과 RDA의 핵심 개체를 문화유산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비정형 텍스트에서 인물·장소·개념·사건 등 개체를 식별하고, 개체 간 관계를 연결하는 방식을 실험하였다. 분석 결과, LRM의 개체 구조는 텍스트 기반 자료의 의미망 구축에 효과적이지만, 세부 속성의 부재·추론 필요 정보의 누락·주기적 맥락 정보의 소실 등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국내 목록규칙 연구는 주로 KCR과 국제 목록규칙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규범 차원의 비교 분석에 머물렀으며, 특정 자료 유형, 특히 고문헌에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다룬 사례는 미비하다. 한편 해외에서도 RDA와 LRM을 기록물이나 문화유산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기록물·문헌자료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 고문헌의 판식·장정·형태와 같은 세부 물리적

특성을 목록규칙 내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KCR 5의 제정 시점에 고문헌 목록에 이를 직접 적용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Ⅲ. KCR 4와 KCR 5 고문헌 목록 기술 방식 비교

1. 구조적 비교

KCR 4와 KCR 5는 고문헌 기술 규정의 세부 조항뿐 아니라 규정의 구조와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두 규칙은 고문헌을 기술 대상으로 정의하는 방식, 기술의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 전거제어와 관계 기술의 도입 여부, 그리고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KCR 4와 KCR 5는 고문헌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KCR 4는 「제4장 고서 및 고문서」의 '4.0.2 기술의 대상'에서 1910년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를 기술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이후 간사된 자료 중 장정이 동장본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시기와 장정을 기준으로 고문헌의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유형의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방식이었다. 반면 KCR 5는 고문헌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1.1.0.2.2 우선정보원' 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한편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되거나 필사된 동장본 및 고문서의 우선정보원 순위는 다음과 같다.'와 같이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장정이 동장본인 경우에는 이후 간사된 자료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미지로 구성된 자원 역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KCR 5는 고문헌의 범위를 별도의 장으로 정의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기술 과정에서 고문헌 자원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KCR 4와 비교할 때, KCR 5는 고문헌 규정의 위치와 표현은 달라졌으나 기술 대상 자체는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KCR 5에서는 디지털 이미지 자료를 포괄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규정의 위치, 정의 방식, 자원 유형의 포괄성에서 확인된다.

기술 수준은 기술의 단위가 되는 크기를 의미하며, 하나의 저작, 판, 혹은 개별자료가 모두 기술의 수준이 될 수 있다. KCR 4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자료를 단일한 개체로 간주하여 개별자료 수준에서 기술하였다. 반면 KCR 5는 WEMI 모형을 수용하여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자료(item)의 네 층위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저작에 속하는 다양한 판본을 구현형 단위에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개별자료의 특성을 각각 기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논어(論語)』의 여러 판본을 예로 들면, KCR 4에서는 목판본, 활자본, 필사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두 개별자료 수준에서 독립적으로 기술하여 동일한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KCR 5에서는 WEMI 모형에 따라 『논어』라는 저작을 설정하고, 한문 원문이나 번역본은 표현형, 목판본·활자본 등은 구현형, 개별 도서관 소장본은 개별자료로 기술한다. 이러한 구조화는 구현형 판본 간의 계통적 관계와 저작과 자료 간의 연계를 명확히 드러내어, 연구자나 이용자가 특정 자료가 어느 저작에 속하며 어떤 판본과 연결되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거제어의 측면에서도 두 규칙은 차이를 보인다. KCR 4에서는 표제와 책임표시가 기술자의 해석이나 임의 보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거형 접근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KCR 5는 인물, 단체, 저작 등 모든 개체에 전거형 접근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표기를 통일하고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두 규칙은 개체 간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KCR 4에서는 개체나 관계 개념이 규정 차원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며, 판본 간 계보나 저작-저자 관계 등은 필요한 경우 주기사항에 제한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술자의 재량에 크게 의존했으며, 기록된 관계가 탐색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KCR 5는 관계 기술을 별도의 요소로 구성하여 자원 간의 위계뿐 아니라 저자, 수신자 등 다양한 개체와의 연계를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KCR 4는 국내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국제 규범과의 연계성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KCR 5는 ISBD, RDA, 국제목록원칙과의 정합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작성된 목록이 국제 서지 네트워크 속에서 호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여러 나라 기관에 소장된 자료는 이러한 정합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의 메타데이터와 함께 검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KCR 4와 KCR 5 고문헌 목록의 구조적 비교

구분	KCR 4	KCR 5
규정 위치	『제4장 고서 및 고문서』에서 고문헌을 독립 장으로 규정	‘1.1.0.2.2 우선정보원’에서 간접적으로 기술
대상 정의	1910년 이전 간인·필사본, 동장본 중심	동일 조건 적용, 장정이 동장본인 경우 및 이미지 자료 포함
자원 유형	고서와 고문서를 별도의 특수 자원으로 구분	고문헌을 통합적 자원 범주 내에서 처리
기술 수준	단일 수준, 개별자료 중심 기술	WEMI 모형 기반,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의 다층적 기술
관계기술	주기사항에 제한적으로 기록되나 개체 간 개념적 관계 표현은 제한적임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및 저자 등 외부 개체와의 연계를 구조적으로 기술
전거제어	명시적 규정 없음, 기술자 임의 해석·보정 허용	인물·단체·저작 등 개체에 전거형 접근점 부여
국제 정합성	국내 규정 중심, 국제 규범과 연계 제한적	ISBD, RDA, 국제목록원칙과 정합성 강조

2. 기술 규정 비교

가.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KCR 4의 고서와 고문서 표제 채기 규정은 「제4장 고서 및 고문서」에서 총 7개 조항을 두고 상황별 적용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표제를 기록함에 있어 KCR 4는 ‘한줄쓰기’를 기본으로 삼고, 필요에 따라 그에 합당한 표제를 만들어 보기(補記)할 수 있다. 가령 ‘完營鶴峯[先]生祠堂記’의 경우, ‘先’자가 원문에는 없으나 생략된 것이 확실하므로 각괄호를 사용하여 보기하였다. 이는 목록 작성자의 해석과 판단이 서지기술에 일정 부분 반영됨을 보여준다.

한편 KCR 5는 이러한 규정을 모두 하나의 항목 안에 통합하고 있으며, KCR 4의 7개 조항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다. KCR 5는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며(예: 1.1.0.2.2), 정보의 생략이나 불완전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위 사례에서라면 ‘先’자를 보완하지 않고 ‘完營鶴峯 生祠堂記’로 그대로 기술된다. 이처럼 KCR 5는 기술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보원에 나타난대로 기술하여 표제를 일관되게 기술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고문헌의 경우 정보원이 손상되거나 불완전한 사례가 많고, 다른 정보원에서 유추해야 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이때 기술자의 해석이 완전히 배제되면 식별에 필수적인 정보가 기록되지 않거나, 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KCR 4와 KCR 5는 책임표시사항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KCR 4는 책임 주체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목록 작성자가 역할어(예: 편찬, 집필, 교정)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반면 KCR 5는 책임표시사항 역시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를 채기하며, 책임이 있는 개체를 별도의 엔티티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기술 대상과 인물의 관계는 ‘책임관계’로 표현되며, 이는 관계 중심 기술과 전거제어 강화를 지향하는 KCR 5의 특징을 보여준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 기술 규정 비교

항목	KCR 4	KCR 5
표제 규정 방식	유형별 세부 조항 다수 제시	통합 규정으로 간략화
기술 원칙	필요시 해석 및 보완 허용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
기술자의 개입	판단과 해석 반영 가능	개입 최소화, 표준화 지향
책임표시사항 기술	역할어 부여 중심	책임 주체를 별도 엔티티로 분리
관계 표현	기술 대상과 인물 간 관계 없음	책임관계로 명시적 표현

이러한 변화는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기술을 보다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하지만 고문헌과 같이 정보원이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누락된 자료에서는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원 그대로의 기술 원칙에 따라 보완적 표기나 해석적 기술이 제한되면 경우에 따라 자료의 정확한 식별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책임 주체를 개체 단위로 분리하는 방식은 관계 기반 기술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역할어를 활용해 편찬·교정의 성격을 명시하던 기존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 역할어를 기반으로 책임관계를 표현하더라도 특정 고문헌의 제작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간략화될 수 있다.

나. 판사항과 발행사항

KCR 4의 고서 판사항은 일반 단행본과 달리 간행 차수를 기술하기보다는 간행 방식과 재료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고서의 경우 ‘금속활자본’, ‘목판본’과 같이 간행된 방식과 재료를 반영한다. 특히 금속활자본의 경우 ‘갑인자’, ‘정유자’와 같이 글자의 명칭을 직접 기재하며, 목판본의 경우 판각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초간(初刊)’, ‘중간(重刊)’, ‘번각(飜刻)’ 등을 명시한다. 더하여 KCR 4는 이러한 구분을 체계화하기 위해 각 판종별로 활용가능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행 재료와 판각 성격이 자료의 식별과 가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일한 저작이라 하더라도, 저본(底本)이 되는 금속활자본과 후대에 번각된 목판본의 가치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반면, KCR 5는 WEMI 모형 중 구현형 수준에서 판사항을 기술하며, 특정 유형의 자료를 위한 별도의 상세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KCR 4에서 기술되던 판본 구분과 판본별 세부 사항 중 일부 세부 기술 요소(예: 행자수, 광곽, 변란 등)가 간략화되었다. 고서의 판사항에 관한 내용은 ‘1.1.3.1.2 판사항의 기록방법’ 하위 조항 중 “고서의 경우 판차 대신 판종을 기록하며, 판차와 판종을 함께 기록하려면 판차를 원괄호에 기재한다.”라는 규정만 확인된다. 이 조항은 기술 형식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어, 고서의 다양한 판본 특성과 식별 요소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목록 규칙은 발행사항의 기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KCR 4는 발행사항을 ① 발행지·배포지, ② 발행처·배포처, ③ 발행년·배포년, ④ 제작사항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반면 KCR 5는 발행사항을 ① 발행지, ② 대등발행지, ③ 발행처, ④ 대등발행처, ⑤ 발행일, ⑥ 판권일의 여섯 요소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발행지·발행처·발행일을 핵심 요소로 규정한다. 다만 KCR 5는 이 요소들의 기재 순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고서의 발행지·발행처·발행일에 관하여도 KCR 4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 지침을 제공한다. 예컨대 발행지의 경우, 영인본과 사찰본에 대한 기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발행처의 경우 사가본·중간본·번각본 등의 경우에 따른 채기 방식과 기술 지침을 포함한다. 특히 발행일 기술은 KCR 4와 KCR 5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KCR 4는 ‘역조명 + 연도’, ‘연호 + 연도’ 형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간지기년, 고희간지기년 등 전통적 연호 표현 방식도 세분화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KCR 5는 자원에 나타난 발행일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서의 복잡한 발행일 표현 양식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변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기술 방법의 축소에 그치지 않고, 동일 저작 내에서 판본을 구분할 수 있는 판본 구분을 위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컨대 『동의보감』의 초간본과 번각본은 동일한 텍스트를 담고 있으나, 판각 방식과 시기에 따라 사료적 가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KCR 5의 축약적 기술은 판본학적 연구 및 자료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학술적 활용 측면에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판사항과 발행사항 기술 규정 비교

항목	KCR 4	KCR 5
판사항 기술 기준	간행방식(금속활자, 목판)과 판각성격(초간, 중간, 번각 등) 중심	구현형 수준에서 간단히 기술. 상세 유형별 구분 없음
판본 명칭 사용	'갑인자', '정유자' 등 자체 명칭	판차와 판종 병기 가능하나, 기술 방식만 제한적으로 규정
판사항의 구조	고서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용어와 기준 제시	고서 특화 규정 없이 통합적 접근
발행사항 요소	발행지, 배포지, 발행처, 배포처, 발행년, 제작 사항 순서 규정	발행지, 대등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등 6개 요소 순서 미지정
발행일 기술 방식	전통적 연호(간지기년, 고희간지 등)와 서기 병기 가능	정보원에 나타난 그대로 기술

KCR 5의 판사항·발행사항 규정은 다양한 자료 유형에 적용가능한 통합적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고문헌과 같이 판본의 미세한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원에서는 일부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KCR 4는 판본의 재료적 특성과 판각 성격을 세분화하여 기술하도록 하여 판본의 계통과 가치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KCR 5는 구현형 수준에서 고문헌의 다양한 간행 맥락이 간략화되는 경향이 있다. 발행사항 역시 연호 표현이나 출판 특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축소되면서, 자료의 성격이나 간행 배경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일부 정보가 덜 체계적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있다.

다. 형태사항과 주기사항

KCR 4는 고서의 물리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4.5.1 특정 자료 종별과 자료의 수량'과 '4.5.2 기타 형태사항'을 구분하였다. '4.5.1 특정 자료 종별과 자료의 수량'에서는 장정별 책수와 면수의 기술 방법, 낙장 자료의 기술 방법, 회귀서의 예외 사항까지 세분화하여 규정한다. 이는 고서의 선장본, 권자본, 절첩장 등 다양한 장정 형식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고서의 외형적 특성과 수량적 정보를 정확히 기술함으로써 동일

자료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보존과 검색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KCR 4의 '4.5.2 기타 형태사항'은 고서의 외형적 특성과 판식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삽화'와 '판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삽화'는 고서에 판화, 지도, 초상, 변상도(變相圖) 등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 '插畵'라는 단어를 앞세우고 삽화의 종류를 기술한다. '판식'은 고서의 서지적 특징 중 하나로, 광곽(匡郭)의 크기, 계선(界線)의 유무와 종류, 판심(版心)의 구성, 행 수와 자 수 등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20.5×16.3 cm"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저작의 판본을 세밀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처럼 KCR 4는 고서의 형태적 특성과 세부 판식까지 포함하여 자료의 외형과 판본 특성을 정밀하게 기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R 5는 고서의 형태사항을 '수록매체사항' 하위에서 다룬다. 수록매체사항은 이전 판의 형태사항과 유사한 내용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1.1.6.3.2 기록방법' 하위에서 고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제시된다. 그러나 KCR 4와 달리 판식에 관한 내용은 주기사항에서 다루며, 전체 크기와 관련된 사항만 일부 장정에 한해 기술한다. 이와 같이 KCR 5는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려는 구조를 채택하였으나, 고서와 같이 물리적 형태가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의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간략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KCR 5는 물리적 특성을 보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주기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KCR 4의 '기타 형태사항'에서 다루던 내용은 KCR 5에서는 구현형의 주기사항을 통해 기술된다. 따라서 광곽, 계선, 행자수 등의 항목은 모두 '1.1.10.6 수록매체사항 주기사항'에 포함된다. 다만 KCR 5는 KCR 4와 달리 다양한 구두점의 활용이나 기술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목록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KCR 4가 광곽·계선·판심 등 물리적 특성을 주요 식별 요소로 활용하는 전통적 방식을 유지한 것과 달리, KCR 5는 이를 주기사항으로 처리함으로써 고문헌 목록에서 판본학·서지학 연구에 필요한 세부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KCR 5의 포괄성은 다양한 자료 유형을 다루는 데는 유리하지만, 고문헌의 물리적 개별성을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KCR 4의 주기사항은 번역이나 개작 등에 관한 주기, 표제에 관한 주기, 책임표시에 관한 주기, 판의 성격에 관한 주기, 형태사항에 관한 주기 등 고서 목록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KCR 5는 앞서 언급한 '기타 형태사항' 외에도 KCR 4에서 다루던 주기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위치와 항목 구성이 일부 조정되었다. 따라서 KCR 5는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괄하기 위해 기술 항목을 유연하게 재편하면서도 기존 목록규칙의 핵심 요소를 가능한 한 반영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형태사항과 주기사항 기술 규정 비교

항목	KCR 4	KCR 5
형태사항 기술 구조	'자료 수량과' 기타 형태사항'을 구분하여 세부 규정	수록매체사항 하위에서 통합적으로 기술
형태사항	장정 유형, 낙장 여부, 책수 등 세부 기준 제시	일부 장정에 한해 크기 정보 기술, 장정 형식 구체성 낮음
판식 정보	광곽, 계선, 행자수 등 판식 항목을 체계적으로 서술	판식 정보는 주기사항을 통해 선택적으로 기술
삽화	삽화 종류(지도, 초상 등)를 별도로 명시	형태사항 또는 주기사항을 통해 간략히 기술 가능
주기사항	기술 항목별로 구분된 주기를 상세히 제공	기존 규정 반영하되, 위치를 재배치하고 기술 방식 단순화

KCR 5는 다양한 자료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형태사항과 주기사항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며 기술 구조를 간소화하였으나, 고문헌처럼 물리적 특성이 중요한 자료에서는 세부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KCR 4가 장정과 판식 등 외형 요소를 세분화해 기술한 것과 달리 KCR 5는 이를 주기사항에 분산하여 기록하도록 하면서 기술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규정의 포괄성과 목록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판본 식별이나 서지학적 분석에 필요한 미세한 형태 정보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주기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고문헌의 제작·외형 특성이 구조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IV. 고문헌 기술 사례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실제 고문헌에 KCR 4와 KCR 5를 각각 적용하여 기술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제 목록의 주요 기술 사항을 비교하기 위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동의보감(東醫寶鑑)』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한 『정사공신조은사패왕지(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를 선정하였다.

1. 『동의보감(東醫寶鑑)』 기술 사례

먼저,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의관 허준(許浚)이 선조 29년(1596)에 편찬 명을 받아 완성한 대표적 의서로, 모두 2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본 자료는 판식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서문·내사기 등 풍부한 주기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두 규칙의 기술 방식을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동의보감』의 권수제면과 KCR 4 기준의 서지사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동의보감』 권수제면과 서지사항

권수제면	서지사항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東醫寶鑑, 卷1-25 / 許浚(朝鮮) 奉教撰
	판사항	木活字本(內醫院字)
	발행사항	[漢城]: 內醫院, 光海君 5(1613)
	형태사항	25卷25冊: 插圖, 四周雙邊 半郭 27.6 × 17.9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36.6 × 22.0 cm
	주기사항	印出記: 萬曆四十一年(1613) 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序: 萬曆三十九年辛亥(1611)...李廷龜

앞서 제시한 『동의보감』의 서지사항을 바탕으로 KCR 5의 기술 규정을 적용하여 서지기술을 새로이 작성하였다. 두 규칙에 따른 기술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문헌 기술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이와 기술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우선, KCR 5를 적용한 『동의보감』의 구현형 수준 기술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동의보감』의 구현형 수준 기술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구현형 (속성)	표제	본표제	東醫寶鑑
	책임표시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許浚
	발행사항	발행지	[漢城]
		발행처	內醫院
		발행일	萬曆41年
	판사항	판표시	木活字本(內醫院字)
	수록매체사항	매체유형	중개장치 없는 매체
		수록매체유형	도서
		수량	25卷25冊
		크기	36.6 x 22.0 cm
주기사항	발행사항 주기	(光海君5年, 1613)	
	수록매체사항 주기	印出記: 萬曆四十一年(1613) 十一月日內醫院奉教刊行 四周雙邊 半郭 27.6 × 17.9 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內向3葉花紋魚尾	
구현형 (관계)	구현형에서 저작으로의 관계	許浚, 1539-1615, 東醫寶鑑.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의 경우, KCR 4는 구두점을 이용하여 두 항목을 결합해 “표제. 권수 / 저자명(국가명) 저자 역할어” 순으로 기술하는 반면, KCR 5는 두 항목을 각각 “표제. 권수”, “저자명”으로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다. 기존의 구두점은 ISBD 형식을 적용한 것이나 KCR 5는 이 같은 형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KCR 5에서 저자 역할어가 생략된 것은 『동의보감』의 정보원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임의로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CR 5는 저자의 전거형접근점을 통해 ‘허준’이라는 인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판사항과 발행사항의 차이를 들 수 있다. KCR 4에서는 무신자로 간행된 금속활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KCR 5의 기술에서는 금속활자 여부를 기술하기 위한 독립적인 규칙이나 항목이 없다. 이는 규정상 기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KCR 5가 포괄적인 기술을 지향하면서 세부 판본 정보가 필수 기록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료 유형별 세밀한 판본 기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해당 경우는 같은 『동의보감』이라도 저본의 권위를 평가할 때 참고 정보가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KCR 4에서는 ‘간사지미상(刊寫地未詳)’과 같이 한자로 표기하였으나, KCR 5에서는 ‘발행지 불명’과 같이 국문으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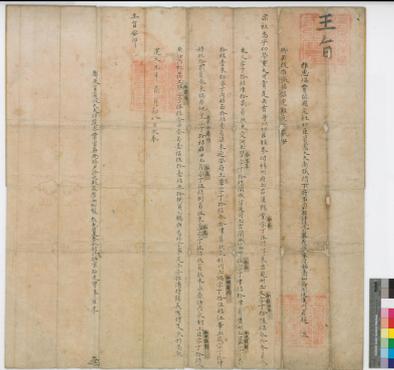
가장 큰 차이는 형태사항에서 나타난다. KCR 4에서의 ‘형태사항’은 KCR 5에서 ‘수록매체사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술 항목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존 형태사항은 ‘권책수: 광곽·반곽 크기, 행자수·註, 판심 ; 책 크기’ 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KCR 5에서는 ‘매체유형’, ‘수록매체유형’, ‘수량’, ‘크기’를 각각 기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형태사항에 포함되던 권책수와 전체 크기는 각각 ‘수량’과 ‘크기’로 기록되었으나, 반곽 크기, 행자수, 계선 등의 세부 요소는 명시적으로 기술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KCR 5는 FR 모형을 적용하면서 표현형 혹은 저작 등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KCR 4는 반곽 크기, 행자수, 판심 구조 등 세부 판식을 기술하여 동일 판본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한다. KCR 5는 이를 주기사항으로 기술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판본 식별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KCR 5에서는 구현형과 저작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고문헌의 계통과 의미를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KCR 4 체계에서는 저작과 판본의 관계가 기술자 주석이나 암묵적 맥락에 의존한 반면, KCR 5에서는 구현형이 저작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참조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어떤 저작의 물리적 실현물인지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같은 『동의보감』이라도 초간본·중간본·번각본 등 여러 계열의 판본이 존재하는 고문헌 환경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용자가 특정 간행본의 계통적 위치를 이해하고, 서로 다른 구현형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2.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 기술 사례

다음으로 선정한 고문서는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이다. 이 문서는 조온(趙溫, 1347~1417)에게 제1차 왕자의 난에 참여한 공을 치하하며 내려진 사패 왕지로, 현재 보물 제113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본 자료는 고문서이지만 장정 형태를 지니며, 문화재 관련 정보와 서지적 기술 요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형태 사항과 주기사항이 비교적 세밀하게 기술되어 있어, 두 규칙 간 기술 방식의 차이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기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의 원문 이미지와 KCR 4 기준 서지 사항은 <표 7>과 같다.

<표 7>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 원문과 서지사항

권수제면	서지사항	
	표제와 책임표시사항	王旨 / 趙溫(朝鮮) 受取, 定宗 發給
	관사항	筆寫本(原本)
	발행사항	[發行地不明] : [發行者不明], 定宗 1(1399) 寫
	형태사항	折帖裝 1鋪(8折) ; 全紙 82.4 × 80.7 cm, 折帖 41.5 × 20.2 cm
	주기사항	題簽: 定宗下賜文券 建文元年(1399)貳月初八日伏奉 紙質: 楮紙 朝鮮王寶, 藏書閣印 貴重本(寶物 1135號)

다음으로 KCR 5를 적용한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의 구현형 수준 기술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정사공신조온사패왕지』의 경우에도 표제와 책임표시사항에서 KCR 4는 구두점을 이용한 항목으로 결합하여 기술하며, 국적·생몰년을 함께 표기한다. 예를 들어, KCR 4에서는 “定社功臣趙溫賜牌王旨 / 定宗(朝鮮王, 1357-1419) 命製, 趙溫 受取”처럼 저자 역할어(命製, 受取)를 명시한다. 반면 KCR 5는 표제와 저자명을 각각 분리하여 기록하고, 인물 정보는 식별 데이터로 관리한다. 또한 이번 사례에서는 정보원에서 저자 역할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일부 책임 표기 요소가 생략되었다. KCR 4는 ‘命製, 受取’와 같은 역할어를 명시해 발급자·수급자 관계를 드러낸다. 반면 KCR 5는 정보원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생략되므로, 문서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표 8〉 『정사공신조은사패왕지』의 구현형 수준 기술

개체	요소	하위요소	서지데이터
구현형 (속성)	표제	본표제	王旨
	책임표시	본표제관련 책임표시	定宗
	발행사항	발행지	발행지불명
		발행처	발행처불명
		발행일	建文元年
	관사항	관표시	筆寫本
	수록매체사항	매체유형	중개장치 없는 매체
		수록매체유형	문서
		수량	1鋪
		크기	41.5×20.2cm
주기사항		(定宗 1, 1399)	

관사항과 발행사항에서는 KCR 4가 필사본임을 명시하고 발행지·발행처 미상을 한자로 표기하지만, KCR 5에서는 ‘발행지 불명’, ‘발행처 불명’과 같이 국문으로 표기한다. 형태사항의 경우, KCR 4는 장정 방식, 전지·절지 크기, 재질, 인장 정보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반면에 KCR 5는 이를 매체유형·수록매체유형·수량·크기 등 요소별로 나누어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반곽 크기, 계선 등 일부 세부 판식 정보는 기술 과정에서 축약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술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KCR 5는 인물·저작·표현형 간 관계 기술이 가능하다.

본 사례에서는 ‘정종(朝鮮王)’과 ‘정사공신조은사패왕지’ 간의 관계, 그리고 수여 대상자인 ‘조온’과의 관계를 구현형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다. 한편 KCR 5는 FR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인물·저작·표현형·구현형 간의 구조적 관계 기술이 가능해진다. 본 사례의 경우, 구현형 레코드에서 저작과 표현형으로 연결되며, 저작은 다시 ‘정종(朝鮮王)’이라는 행위 주체와 연결되고, 수여 대상자인 ‘조온’은 ‘수혜자’로 연결된다. KCR 4는 ‘折帖裝, 楮紙, 인장 정보, 보물 1135호’까지 통합 기록해 문화재 관리와 직결된다. KCR 5는 이를 속성별로 나누고 일부를 생략하여, 문화재 관리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속성 분리는 기계 가공·데이터 통합에는 유리하다. 즉, KCR 5는 판본과 형태사항의 기술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다른 영역에서는 구조적 관계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두 사례를 종합하면, KCR 5는 구조적 관계 기술과 전거제어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표현형·구현형·개별자료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인물과 문헌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점은 고문헌 기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판본 식별 요소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맥락적 정보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판본학적 연구와 서지학적 활용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이는 KCR 5가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 통합에는 적합하나,

고문헌 고유의 특수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구조적 관계 기술이나 전거제어 측면의 틀은 유지하되, 고문헌에 특화된 보완 지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V. 논의 및 결론

디지털 환경에서 서지 데이터의 구조화와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면서, 목록규칙은 단일 기록 중심의 기술 방식에서 관계 기반·전거 중심의 기술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 속에서 KCR4에서 KCR5로의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장기적으로는 FRBR/LRM 기반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모든 유형의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특히 고문헌처럼 형태적·판본적 특수성을 지닌 자료는 일반 규칙만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문헌 목록에 있어 KCR4와 KCR5를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KCR5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R 4와 KCR 5를 비교하여 규정상의 차이와 변화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표제, 책임표시, 판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등 주요 기술 요소를 중심으로 두 규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실제 고서 사례에 적용하여 어떤 부분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KCR 5를 고문헌에 적용하는 경우 장점과 기술에 있어 나타나는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KCR 5는 WEMI 모형에 기반한 구조화된 기술을 도입하여 자료 간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고서는 동일한 저작의 서로 다른 판본과 그 계통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단일개체를 기술하는 KCR 4는 이를 표현할 수 없었던 반면 KCR 5는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전거제어와 관계 기술을 통해 저작, 인물, 구현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보였다. 봉명찬서의 경우 편찬을 명한 임금과 실제로 편찬한 인물, 해당 저작과 번각본 간의 관계를 KCR 5 기반의 기술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헌의 경우, 물리적 형태와 판본 식별 요소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사항이 필수 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주기사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자료의 세부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기술자의 해석과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KCR5 전환 시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의 단순한 주기사항 이전이 아니라 수록매체사항·매체유형·주기적 맥락요소 등 KCR5의 특정 기술 요소에 기존 KCR4 정보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반곽·계선·장정 정보는 '수록매체유형'이나 '기록매체의 특성' 요소에 구체적 속성으로 반영함으로써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고문헌의 판본 식별 정보를 보전할 수 있다.

고문헌 기술의 보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KCR 5의 구현형 구조 안에서 판본·

형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수록매체사항에 기록매체의 특성과 장정 유형을 세분화하여 기술함으로써 선장본·절첩장 등 장정 형태를 명확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 판사항에서는 금속활자 종류, 목판 판각 성격, 초간·중간·번각과 같은 판종 정보를 확대하여 판본의 계통을 보다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광곽, 계선, 판심, 삽화, 인장 등 판본 식별 요소는 구조화된 판본식별 주기로 정리해 기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재 지정 여부와 번호를 개별자료 수준에서 명시하는 주기를 신설하여 자료의 가치와 맥락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KCR 4에서 다루 온 세부 기술 요소를 KCR 5의 구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시적 제안이다.

기술 규칙의 변화는 단순한 데이터 구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의 디스플레이 방식과 이용자 인터페이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MARC 체계가 KCR5의 관계 기반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KCR4를 기반으로 구축된 목록 데이터를 KCR5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KCR5의 구조적 관계 기술과 전거제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데이터가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KCR4가 세부적으로 기술해 온 고문헌의 형태적·판본적 정보가 전환 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KCR 5가 지닌 구조적 장점과 동시에 고문헌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데 있다. 특히 기존 KCR 4가 세부 기술을 강조한 반면, KCR 5는 다양한 정보자원의 포괄적 기술을 중시하면서 세밀한 기술을 축소한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고문헌 분야에서 단순히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자원 유형별 특화 지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문헌 기술 규정의 개선 방향은 향후 한국목록규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를 기반으로 구현형에 한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문헌의 개념적 관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저작·표현형·개별자료 등 다른 개체 수준까지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보다 다양한 고문헌 판본과 기술 사례를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목록 환경에서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실무 경험을 비교하거나 실무자 인터뷰·설문조사를 통해 규정 적용 과정에서의 요구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미혜 (2004). KCR4와 KCR3.1의 단행본관련 목록규칙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141-157. <https://doi.org/10.4275/KSLIS.2004.38.3.141>
- 강순애 (2014). 고문서 목록규칙 표준화(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남일 (2009). 고문서 메타데이터 표준화 현황과 과제 -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 한국국학진흥원의 고문서 메타데이터를 중심으로 -. 古文書研究, 34, 107-147.
<https://doi.org/10.21027/manusc.2009.34..005>
- 김정현 (2013). 한국목록규칙의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123-143.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123>
- 김정현 (2024).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특성과 주요 내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동계 학술대회, 25-45.
- 김정현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 초안의 특성과 서지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1), 271-288.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1>
- 박진희 (2009). RDA와 KCR4의 기술규칙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111-138.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111>
- 윤소영, 박지영, 이혜원 (2017). FRBR LRM을 이용한 고전자료 서지정보의 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49-7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049>
- 이미화 (2013). ISBD 통합판과 KCR4 기술규칙 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185-20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2.185>
- 이미화 (2023). RDA 2020을 적용한 구현형의 목록기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3), 49-7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049>
- 정인영, 이종욱 (2024). RiC 기반 조선총독부 공문서 메타데이터 기술 구조 설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23-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23>
- 정재영, 남태우 (2002). KCR 4판 초안 제5장 '악보'에 대한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제9회학술대회 논문집, 141-146.
- 韓國圖書館協會 (2003).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 한국도서관협회 (2025). 한국목록규칙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Peruginelli, S., Rulent, M., Bruni, S., Del Vivo, C., Manzoni, L., Capetta, F., & Vivoli, C. (2018). RDA and archives: the search for a bridge between different domains. *JLIS.It*, 9(1). <https://doi.org/10.4403/jlis.it-12403>
- Rašmane, A. & Goldberga, A. (2020). The Potential of IFLA LRM and RDA key entities

for identification of entities in textual documents of cultural heritage: The RunA Collection.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8(8), 705-727.
<https://doi.org/10.1080/01639374.2020.1862380>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eong, Inyeong & Lee, Jongwook (2024). Designing Records in Contexts (RiC)-Based metadata schema for official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4), 23-46.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23>
- Chung, Jae-Young & Nam, Taewoo (2002). The analysis of the chapter 5 'music' in the draft of KCR4.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141-146.
- Kang, Mia-Hye (2004).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ataloging rules of the monographic publications in KCR4 & KCR3.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3), 141-157. <https://doi.org/10.4275/KSLIS.2004.38.3.141>
- Kang, Sun-ae (2014).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Old Document Cataloging Rules (Research Report). Hansung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Kim, Jeong Hyen (2013).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korean cataloguing ru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123-143. <https://doi.org/10.16981/kliss.44.4.201312.123>
- Kim, Jeong Hyen (2024). Characteristics and key features of the fifth edition of the Korean Cataloging Rules (KCR 5). In *Proceedings of the 50th Anniversary and Winter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5.
- Kim, Jeong Hyen (2025).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the KCR5 draf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1), 271-288. <http://dx.doi.org/10.16981/kliss.56.1.202503.271>
- Kim, Namil (2009). The status and problem related to the old documents metadata standardization. *Korean Historical Manuscripts Research*, 34, 107-147. <https://doi.org/10.21027/manusc.2009.34..00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 Seoul: Korean

-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5). Korean Cataloguing Rules (5th e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Lee, Mihwa (2013).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scription rules of ISBD and KCR4.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185-20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3.24.2.185>
- Lee, Mihwa (2023). A study on methods of describing manifestation applying RDA 202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3), 49-70. <https://doi.org/10.4275/KSLIS.2023.57.3.049>
- Park, Jin Hee (2009). Comparative analysis on descriptive rules of RDA and KCR4.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111-138. <http://dx.doi.org/10.16981/kliss.40.2.200906.111>
- Yoon, SoYoung, Park, Ziyong, & Lee, Hye Won (2017). Organiz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of Korean classic materials using FRBR library refer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49-71.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049>